

광주 전기차 생산 시대 ‘활짝’...캐스퍼EV 양산 돌입

GM ‘1호 전기차 생산 기념식’

양산 34개월만에 전기차 생산 병행
을 2만1천대 생산...50개국에 수출
전체 생산량 5만3천여대 ‘사상 최대’
청년일자리 650개→내년 1천개로

광주에서 캐스퍼 생산을 시작한 지 2년 10개월(34개월) 만에 캐스퍼 일렉트릭(EV)이 생산되면서 ‘경형 SUV’(1000cc 이하) 전기차 시대를 활짝 열었다.

광주시는 15일 오전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서 ‘캐스퍼 일렉트릭 1호차 생산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시장과 윤몽현 GGM 대표이사(사)를 비롯해 박군택 국회의원,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박필순·강수훈·심철의·임미란·김용임 시의원, 박병규 광산구청장, 이상익 함평군수, 이성용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 김승찬 현대자동차 상무, 주주대표 및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GGM이 생산하는 캐스퍼 EV는 315km에 달하는 1회 충전 주행거리 등 동급 최고 수준으로, 무엇보다 2000만 원대 초·중반대 가격이 가장 큰 매력이다.

특히 캐스퍼 EV는 세계 주요 50여 개 나라에 수출돼 GGM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에 GGM은 올해 기존 계획인 1만 7400대보다 25% 이상 늘어난 2만1500대의 캐스퍼 전기차를 생산할 예정이다. 올해 전체 생산량도 5만3000대에 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둘 것이 확실시된다. 현재 650여개의 일자리를 내년 1000개로 늘려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 시장은 축사를 통해 “GGM은 지난해 캐스퍼 10만대 생산에 이어 전기차로 다시 한 번 비상한다”며 “GGM은 광주가 대한민국 미래차 중심도시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한 축이자, 대한민국 표준이 될 상생일자리 모델이다”고 강조했다.

전기차로 진화한 캐스퍼는 탄생부터가 극적이었다. 국내 첫 ‘경형 SUV’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캐스퍼는 GGM에서 위



강기정 광주시장,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이상익 함평군수, 윤몽현 광주글로벌모터스 대표이사(사)와 관계자들이 15일 광주글로벌모터스 조립공장에서 열린 캐스퍼 일렉트릭(EV) 1호차 생산기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탁 생산된다. 첫 생산은 2021년 9월15일이었지만 구상은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됐다.

당시 현대차그룹은 미쓰비시 자동차의 파제로 미니를 기반으로 하는 ‘경형 SUV’의 개발을 시도했으나 외환 위기 등을 거치면서 프로젝트는 그대로 사장됐다. 이후 2010년대 중후반부터 SUV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며 각종 ‘소형 SUV’가 출시됐고, 자연스럽게 ‘경형 SUV’에 대한 수요로까지 이어졌다.

이 시기 광주에서는 ‘광주형 일자리’가 태동했다. 2018년 6월1일 현대차가 자동차 생산 지분투자 의향서를 광주에 제출하면서 지역사회는 물론 완성차업계, 나아가 노동계의 핵으로 급부상했다. 이후 2019년 9월20일 GGM이 태동, 곧바로 새로운 차량 만들기에 돌입했다. 코드명은 ‘AX’로 최초 프로젝트 기획 이후 약 20년 만에 만들어지는 ‘경형 SUV’였다.

2021년 4월5일부터 시험 생산에 돌입했고 같은 해 5월4일 티저 이미지가 공개됐다. 차명은 ‘캐스퍼’로, 2021년 9월1일에 외장 이미지가 공개됐다.

국내 생산 경차 중 2017년 출시된 모닝 이후 4년 만에 출시되는 신차이며, 현대차로서는 2002년 아토스 단종 이후 19년만의 경차였다. 주목도도 높았다. 같은 해 9월14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에서 사전 계약을 받았는데 첫날 현대차 서버가 마

비될 정도였다. 이날 계약은 총 1만8941대로 현대차의

내년기관차 사전예약 최다 기록이었다. 판매방식도 새로워 온라인으로만 주문

캐스퍼 생산 이력



1990년대 후반	현대차 ‘경형 SUV’ 구상
1997년	외환위기로 기획 무산
2019년	광주글로벌모터스 출범
2020년	코드명 AX 설계 착수
2021년 4월	시험생산 돌입
2021년 5월	티저 이미지 공개
2021년 9월	사전예약 및 정식 출고
2022년 2월	2인승 승용 밴 모델 출시
2023년 4월	연식변경 모델 출시
2024년 7월15일	첫 전기차 양산

받아 판매했다. 차량 인도 또한 탁송으로만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주문이 힘든 고객을 위해 전화 상담을 통한 대리 주문도 가능하게 했다. 2022년 2월3일에는 2인승 승용 밴 모델이 출시됐고, 2023년 4월27일 연식 변경 모델을 출시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 상무

Gwangju Youth Job Station | Youth Cafe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9 (동양빌딩 9층) ▶ 15세 이상 39세 이하 누구나 ▶ 전액무료 및 간식제공

진로찾기 프로그램
맞는 진로 적성을 찾고 싶어요.

경력설계 프로그램
이전에 했던 일이 아닌 다른 진로를 찾고 싶어요.

청년성장프로젝트

청년고용정책
청년:Up
맞춤형 지원으로 취업성공

일상지원 프로그램
취업에 필요한 내적 성장을 하고 싶어요.

창업 및 디지털교육
스타트업, 디지털 기술 등 실용적인 것이 필요해요.

취업상담, 심리상담
(취업)상담을 받아 보고 싶어요.
(심리)위로와 고민상담이 필요해요.

다양한 원데이클래스
재미있는 원데이클래스에 참여하고 싶어요.

You Got This!
let's Go!!

<https://jobstation062.modoo.at/>
(062) 375-1537~9

민주 도당위원장에 주철현 합의추대 전망

朱 “당원주권시대” 5대 공약 제시
김원이·조계원 의원 불출마 가닥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에 주철현(여수 갑·재선·사진) 의원이 합의추대 형식으로 단독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출마가 예상됐던 김원이(목포) 의원과 막판까지 고심했던 조계원(여수 을) 의원은 결국 불출마하기로 했다.

주철현 의원은 후보등록 첫날인 15일 오전 전남도당을 찾아 후보등록을 마친 뒤 11시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의 변과 주요 공약 등을 발표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전남을 중심으로 ‘당원주권시대’를 열겠다”며 5대 공약을 제시했다.

5대 공약은 △2026년 지방선거 압승을 위한 시스템 공천과 체계적 선거 지원 △윤석열 정권 견제와 호남민주정권 창출 △지방소멸위기 극복과 자치분권 실현 △



지구당 제도 부활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전남시범사업 발굴과 지방선거 공동공약 제시 등이다.

도당위원장은 다음 달 4일 민주당 전국당원대회와 함께 열리는 전남도당개편대회에서 선출될 예정이다.

도당위원장은 그동안 전남 동·서부권 갈등과 과열 선거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당내 경선보다는 합의추대 형식으로 선출돼온 만큼 이번이 없는 한 주 의원 단

독출마 후 추대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주철현 의원은 여수 출생으로 1983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검찰청 공안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감찰청 특수1부장검사, 광주지검장, 대검찰청 강력부장을 역임한 검사장 출신이다. 민선 6기 여수시장을 지낸 바 있다.

오지현 기자